

“땅끝 해남으로 마실 한 번 오세요”

생활관광 프로그램 7월부터 운영 펜션 운영자 등 32명 아카데미 수료 군, 체류형 관광 활성화 총력전

“땅끝 마실 한 번 오실래요.” 해남군이 생활관광 프로그램의 명칭을 ‘땅끝마실’로 최종 확정하고 7월부터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생활관광은 일정기간 한 여행지에 머물면서 새로운 환경을 충분히 경험해 보고, 지역에서 소소한 일상을 즐기고 문화를 체험해보는 관광 트렌드이다. 코로나 이후 정정 자연 속에서 힐링을 즐기는 개별·소규모 여행 등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땅끝마실”은 생활관광의 의미를 담아 앞으로 해남군만의 먹거리와 볼거리를 즐기고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생활관광 프로그램을 구축하게 된다. 이와 관련 생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기반 구축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군은 지난 24일 생활관광 아카데미 수료식을 가졌다. 생활관광 아카데미는 지역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농어촌민박업 등 운영자들의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생활관광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



지난 24일 생활관광 프로그램 운영 기반 구축을 위해 실시한 생활관광 아카데미 수료식이 열렸다.

육과정으로 총 8회에 걸쳐 진행됐다. 수료식에서는 아카데미를 수료한 사업자 32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해남군 생활관광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가졌다. 군에서는 생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땅끝마실” 운영업체로 인

증하고 숙박시설 개선, 마케팅 홍보,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생활관광이 우리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생활관광이 지역에 뿌리 내려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목포시 신재생에너지·수산식품·관광산업 3대 전략산업 육성 주력

김종식 시장 취임 3년 기자회견 “해상풍력 발전사업 속도 내겠다”

목포시는 민선7기 남은 1년 동안 신재생에너지, 수산식품, 관광산업 등 3대 전략산업 육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취임 3년을 맞아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1000억원대의 정부 정책과 맞물려 추진하고 있는 3대 전략산업으로 목포발전의 획기적인 기틀을 마련한 만큼 남은 1년 동안 전략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산업과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 등 대규모 사업은 목포의 새로운 미래 가치를 열어가자”이라며 남은 1년 임기동안 3대 전

략산업의 지속적인 육성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특히 “친환경선박과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목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산업구조까지 획기적으로 바꿀 분야로 긴 호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목포시는 현재 친환경선박산업 분야에서 2개의 공모사업을 추진중으로 행정절차를 마치고 기간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 시장은 “해상풍력산업은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뒷받침 할 법 제정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전남도와 적극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어 신안군과의 통합, 목포 시내버스 문제,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2028 세계섬엑스포 유치 등 지역 숙원사업과 난제들에 대해서도 해법 찾기와 청사진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물가가 큰 인산과의 통합이 민간주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적 지원과 함께 목포 시내버스 문제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정상화 방안을 모색해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비좁은 목포역은 녹지공원 조성, 시설 재배치 등 대 개조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서남해안권 섬벨트를 이루는 완도, 진도, 신안 등과 함께 2028 세계섬엑스포 유치를 목표로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오는 10월 열릴 예정인 목포문학박람회 성공과 법정문화도시 지정, 지속가능한 도시와 살기 좋은 도시 조성 등을 민선 7기 남은 과제로 꼽았다.

김 시장은 “남은 임기 동안 경제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목포=박종배 기자 pjb@kwangju.co.kr

체크카드 형식 영암사랑상품권 5일 출시

영암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류형, 모바일형에 이어 체크카드 형식의 영암사랑상품권(이하 ‘영암사랑카드’)을 오는 5일 출시한다.

영암사랑카드는 충전형 체크카드 형식으로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모바일 앱(CHAK:착)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후 7일 이내 등록된 주소지에서 받아볼 수 있다.

핸드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들의 경우 NH농협은행 영암군지부 및 관내 지역농협에서

카드 발급 및 충전이 가능하다. 군은 지난 5월 한국조폐공사와 협약을 갖고 카드형 상품권 디자인을 확정하는 등 사전 절차를 마무리했다.

현재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은 1245개소로 영암사랑카드는 가맹점 중 NH농협카드 취급점 약 900개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충전금액을 초과, 미등록 가맹점에서 사용하거나 후불교통카드 사용, 관외 지역 사용시에는 체

크카드 기능으로 자동 전환돼 연결된 계좌에서 결제가 이뤄진다.

영암군 관계자는 “상품권 소비자들의 요구 반영과 카드상품권 이용의 편리함, 젊은층의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카드형 상품권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영암군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할인율 10%를 유지할 계획이며, 개인별 월 단위 구입한 도액을 지류 및 카드 상품권 통합해 70만원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영암=전봉원 기자 jbh@kwangju.co.kr

목포해경, 여름철 성수기 음주운항 특별단속

목포해양경찰이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해상 음주 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오는 9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10일부터 25일까지 16일간 해상 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목포해경은 지난 3년간 관내에서 총 44건의 음주 운항 행위가 적발됐으며, 이중 전체 적발건수의 43%인 19건이 여름철 성수기에 집중적으로 적발됐다.

이에 해경은 어선과 함께 다중이용 선박(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경비함정 및 파출소, 상황실, 해상교통관제(VTS) 등 해·육상을 연계해 합동 단속할 예정이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해상안전법상 음주 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지난해 5월 19일부터는 음주 운항 처벌 규정이 강화돼 5t 이상 선박이 음주 운항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오는 7월 14일부터 개정된 선박직원법이 시행되면서 음주 측정 거부 시 해기사 면허가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음주 운항은 절대 해서는 안 될 행위이다”고 강조했다.

무안군 남악신도시에 18홀 규모 파크골프장

무안군이 남악신도시에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

파크골프는 파크(park)와 골프(golf)의 합성어로 일반 골프장과 달리 공원 같은 녹지공간에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다.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남악신도시 체육시설

연접부지인 삼함음 남악리 일원 공원부지에 2개 코스 18홀(1만8802㎡)을 조성한다. 다음달 공사를 시작해 내년 초 개장할 계획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번 남악 파크골프장과 주변 산책로가 코로나19로 지친 주민 행복과 건강한 삶을 높여주고 좋은 휴식 장소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



목포근대역사관1관 휴관...실감형 콘텐츠 정비

7월 5~23일 3주간... 주말은 개방

목포시 근대역사관 1관(옛 일본영사관, 이하 1관·사진)이 실감형 콘텐츠 정비를 위해 오는 5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임시 휴관한다.

다만, 주말에는 개방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근대역사관2관(이하 2관)과 함께 무료로 운영한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1관에서는 스마트안경(AR 글래스)을 착용하고 이동하면서 지난 100년 동안 목포가 도시로 발전해가는 과정을 눈과 귀로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또 디지털로 작업된 1·2관의 소장품과 2관의 근대 사진이 2층 대형 스크린에 파노라마처럼 펼쳐 집에 따라 관람객은 자유롭게 화면을 터치해 관심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1관 뒤편에 위치한 방공호 내부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를 추모하는 미디어아트와 바닥 조명 전시물 등을 설치한다. 2관 벽면을 화면으로 활용해 아간에는 목포의 근대역사를 소개하는 샌드아트 영상도 상영할 계획이다.

시는 임시 운영기간을 거친 뒤 8월 중 실감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4차산업기술을 도입해 전남 최초 XR콘텐츠(가상현실+증강현실) 체험공간을 조성하고, 소장품을 디지털 기록화하는 이번 사업은 1관을 스마트 역사관으로 거듭나게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2014년 1관이 개관한 이후 처음으로 콘텐츠를 개편하는 만큼 역사교육과 재미적 요소를 모두 갖추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목포=박종배 기자 pjb@kwangju.co.kr

전라도 영광 촌놈 이기원이 쓴

‘회전목마 인생’

인생은 회전목마처럼 반복적으로 돌아간다. 단지 주인공이 다를 뿐이다.

“파리의 유명한 카페 한쪽 벽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한다. 걱정에는 두 가지 사유가 있다.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만약 실패했다면 병이 들 것이냐 안 들 것이냐가 걱정이고 병이 들었다면 살게 될 것이냐 죽게 될 것이냐가 걱정이다. 죽게 된다면 천당이나 지옥이냐가 걱정인데 불행하게도 지옥에 떨어진다. 이미 가 있는 수많은 동료들과 약속하기에 비해 걱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다.”

정가 13,000원

‘밤벌레의 행복’

강석이의 유머인생 유머와 에세이의 만남

작은 책상과 TV와 노트북, 책꽂이와 장롱이 서로 기대고 있는 서재방인지 골방인지에 푸르그고 앉아 지나온 발자취를 회상하며 글을 써본다. 이왕이면 재미도 곁들여서 말이다. 이를테면 유머형 에세이다. 별로 특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소중한 인생이라고 자위해본다. 이 책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가 12,000원

서점판매 | 광주(영풍문고, 충장서림, 세종문고, 초원서점, 나남문고, 글방문고), 순천(중앙서점), 목포(영풍문고) 인터넷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전주(영풍문고, 웅진서적, 흥지서림, 민중서관), 김제(제일서림), 완주(혁신문고) | 알라딘, 예스24 (배송료 무료)